

민주노총 총파업 끝났지만...동조 파업 계속

공공운수노조, 이날부터 국회·국토부 등 앞에서 선전전 부울경 건설노조, 타설 이어 레미콘·콘크리트 연대파업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끝났지만, 산별 노조의 동조 파업과 집회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주째로 접어들어 화물연대 총파업에 연일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출구 없는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부터 매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등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선전전과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총연맹 차원의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가 열렸지만, 화물연

대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투쟁의 불씨를 살리고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선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조합원 30여명이 피켓을 들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같은 시간 국토부 앞에서는 100여명이 집결해 정부 규탄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유 등에 대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화주인 정유사 앞에서

선전전과 농성도 진행됐다. 현대오일뱅크(서울역 연세빌딩), SK에너지(종로구 SK빌딩), GS칼텍스(역삼동 GS타워) 앞에 각각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나서는 산별 노조도 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는 오는 8일부터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지회의 노동자들도 연대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타설 노동자들이 동조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연대 파업 대상을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해 해 없는 투쟁이라도 만들어서 엄중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도 오는 12일 동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동조 파업과 집회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투쟁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금·단체 협상 합의 등으로 현대중공업 등 대형 사업장 노조가 불참하면서 총파업 참여 인원은 2만명에 그쳤다.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한 여론전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긴급토론회 및 연대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유·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법과 원칙'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노정 간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긴급 중대 회담'을 제안해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대강 대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 광산구청, 생생한 5·18 현장 청취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난 6일 '5·18 사적지 지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광산구의 주요 5·18민주화운동 현장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광주 남구청, '겨울 한파' 독거노인 특별 관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본격적인 겨울 한파 시즌이 임박함에 따라 내년 3월 까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광주 동구청,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DAY' 워크숍 개최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올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2022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DAY'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 동부소방,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예방 홍보캠페인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전통시장 자율점검 '안전하기 좋은 날' 및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병행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양소방 생활안전순찰대, 주방화재 예방가스타이머 꼭 설치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 119생활안전순찰대(이하 순찰대)는 최근 태인동을 시작으로 관내 화재 안전 방문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해양경찰교육원-단국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최근 단국대학교(총장 김수복)와 우수한 인재 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취발유 품질 장기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주유소 기름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시내 주유소에 취발유 품질 안내문이 붙어있다.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져”...주행 중 차량 앞유리 파손

앞유리 절반 파손...보상·보험청구는 불가

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던 차량 위로 경찰이 포획 중인 고양이가 떨어져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찰이 잡으려다 놓친 길고양이와의 사고.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8월16일 서울 서대문구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일차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 A씨는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자 매우 놀랐다. 바로 고가도로 위에서 고양이 낙하하는 것이다. 이 사고로 A씨 차량

앞 유리가 절반 정도 파손됐다.

경찰이 고양이를 포획하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경찰 측에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지만, 주인 없는 고양이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보험회사에도 보상받을 방법을 알아봤지만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뒤늦게 A씨는 '경찰순찰실보상제도(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를 찾아 신청했고, 전



액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젠 하다 하다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네. 보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으셔서 다행이다" "자칫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이런 사고는 예측하기도, 피하기도 어렵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뉴스

스트레스 받는 광주 학생·교사...코로나 이전보다 상승해

광주지역 학생과 교사의 스트레스 지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8700여명, 교사 3400여명, 학부모 6600여명을 대상으로 '2022 광주교육 종합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점수는 67.2점(100점 기준)이다.

지난 2020년 55.6점에 비해 11.6점 상승했다.

학생들은 친구와의 갈등, 학교폭력, 성적, 학업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학교생활을 비롯해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변했다.

교사들도 지난 2020년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담당 행정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는 2020년 17.5%에서 21.6%로 상승했으며 학생과의 관계로 인한 피로감도 11.5%에서 15.9%로 높아졌다.

이 밖에도 학부모나 지역사회 민원(11.2%→12.9%), 교권침해(10.7%→12.0%), 관리자와 관계(5.6%→6.3%)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승했다.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교육 목적은 인성지도(31.6%)와 교과학습(31.4%), 사회적 함양(16.7%)순으로 나타났다.

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만족도는 2020년 72.8%에서 올해 74.0%로 상승했으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20년 75.6%에서 2022년 75.4%로 비슷한 수준이다. 서선욱기자